

가뭄 장기화-비상급수 ‘눈앞’...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11일 전남 화순군 이서면 동북호 취수탑 주변 수위가 낮아져 있다. 광주 지역 주요 식수원인 동북호는 저수율이 30%대 초반까지 낮아져 앞으로 140여 일만 물 공급이 가능하다. 현 추세대로라면 내년 3월 1993년 이후 30년 만의 제한급수까지 우려되고 있다.

극심한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우려했던 비상급수 사태가 눈앞에 와 있다. 30년 만의 제한급수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행정당국은 식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짜고 시민들을 상대로 한 물 20% 아껴쓰기 캠페인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피부 체감도는 떨

어진다. 공공기관의 움직임도 일사불란해 보이지 않는다. 보다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가뭄 사태는 재난이다. 1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봄부터 이어진 가뭄으로 광주·전남의 주요 식수원인 동북호와 주암호의 저수율이 심각한 상황으

로 치닫고 있다. 지난 8일 현재 동북호의 저수율은 32.5%, 주암호는 32.3%까지 떨어졌다. 강수량이 평년 대비 40%대에 머물다보니, 예년 평균 저수율 85%대에 턱없이 못미치는 것이다. 앞으로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2월, 늦어도 3월에는 30년 만의 제한급수가 불가피하다는 게 광주시의 분석이다.

동북호의 경우 저수용량 3095만, 하루 취수량 22만1000㎡ 등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 제한급수 시점을 예측할 수 있다. 주암호의 저수용량도 1억4900만㎡로, 수돗물 공급 가능일수가 뚝 떨어져 있다. 광주에서는 지난 1992년 12월21일부터 156일 동안 제한급수가 실시된 이후 30년 동안 제한급수가 없었다. 전남에서는 완도와 진도 등을 중심으로 이미 1일 급수 6일 단수까지 시행하고 있다. 가뭄 위기관리단계가 지난 8일 이후 3개월째 ‘심각’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기상청이 공동 발표한 ‘11월 가뭄 예·경보’에 따르면 남부지방의 강수량이 평년의 56~71%

에 그치고 내년 1월까지의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행정당국에는 비상이 걸렸다.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대대적인 물 아껴쓰기 캠페인이 펼쳐지고 식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광주시는 월 1만 이상 다량 급수처를 대상으로 물 절약 실적을 집중관리하고 노후수도 계량기 교체와 누수 잡기, 빗물 활용 등 다양한 대책들을 짜내고 있다. 필요할 경우 영산강 하천수와 장성댐, 담양댐 용수까지 끌어 쓴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시민들에게는 화장실 양변기 페트병 넣기, 수도계량기 수압 조절, 샤워시간 단축, 허드렛물 사용 등 자발적으로 생활 속 물 절약을 실천해 주도록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도는 떨어진다. 30여년 동안 제한급수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에게는 지금의 물부족 사태가 내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행정당국의 가뭄대응-비상급수 전략도 상

수도사업본부 등 특정부서 중심으로만 진행될뿐 총체적인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직자들이 느끼는 위기감도 부서에 따라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다. 관련 부서만 전전공공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럴 때일수록 보다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최소한 부단체장급 이상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기구가 꾸려져 모든 부서와 자치구 등을 총괄해야 한다. 지금처럼 상수도본부 중심으로는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가동이 어렵고 모든 부서의 협조를 끌어내기에도 한계가 있다. 코로나 사태처럼 하루하루 회의를 통해 물 절약 실적을 챙기고 대응전략이나 시민캠페인에도 보다 효율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가뭄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특정 부서만 끔찍 앓을 뿐이지, 다른 부서에서는 만나라 얘기처럼 듣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뭄사태 극복에 모든 부서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일선 공무원의 하소연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지금 시점을 놓치면 말 그대로 재난이다. 김재환기자

강진만 고니 사체 검출 AI 항원 ‘고병원성 확진’...올겨울 전남 ‘첫 사례’

전남도, 반경 10km 이내 특별방역지역 지정, 확산차단에 총력

전남 강진만 생태공원 내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검출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판정됐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강진 고니 폐사체 AI 항원을 정밀 검사한 결과 H5형 고병원성 AI 항원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는 올 겨울 들어 첫 사례로 본격적인 철새 남하에 따라 전남 전역에 AI 방역 비상이 걸렸다. AI 청정 지역을 유지해 온 전남도는 앞서 지난 11일 강진만 고니 폐사체에서 항원이 검출

되자 생태공원 탐방로를 즉시 폐쇄하고 500m 이내 지역에 대해 출입금지 조치를 했다. 또 반경 10km 이내를 특별방역 지역으로 정하고 고병원성 AI 확산에 준하는 선제적 방역 조치를 했다. 전남에선 지난 13일 순천만 흑두루미 폐사체와 16일 장흥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돼 고병원성 확진 검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14개 시·도의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37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

다. 야생조류에선 인천 1건, 경기 5건, 충북 4건, 충남 4건, 전북 6건, 경북 1건, 경남 2건, 제주 1건, 전남 1건 등 9개 시·도에서 24건이 검출됐다. 가금농장에선 강원 1건, 충북 8건, 충남 1건, 전북 1건, 경북 2건 등 5개 도에서 13건이 발생했다. 전남은 현재 강진만 고니 폐사체 1건을 제외한 가금농장에선 확진 사례 없이 청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강진=김영일기자



야생조류 고니 폐사체에서 11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전남 강진만 생태공원이 폐쇄 조치됐다. (사진=전남도 제공)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 좀 가게 응급차 좀 불러줘요”

“지갑 잃어버렸는데 좀 찾아줘요”

소방관은 비서가 아닙니다.

3년간 소방관의 사소한 생활민원성 출동 124만 9932건, 하루 평균 1,141회 119 본연의 임무는 응급구조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국민 정재홍·서관우·조윤영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